

[0] 들어감

1. 인사와 소개

윤석입니다. 연구활동가, 고요. 멀리네요.

제 연구 제목은 녹색 분칠에서 녹색전환으로, 한국 기업의 아시아 생태학살입니다.

너무 아픈 비극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밤잠을 설쳤었지요.

오래 기다린 프로보케이션을 시작합니다.

2. 사진 한 장, 고라마라 섬, 연구의 시작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장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아이가 있는 곳은 인도 동남부 뱅골의 고라마라 섬입니다. 이대성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얼마 전 보고는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곳 근처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공간은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 고향 같은 곳인데, 지금은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로 인한 삼각주 침식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합니다.

기후위기의 한 얼굴은 이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3. 탄소예산

오늘자로 7년 1개월 남은 탄소예산입니다. IPCC에 근거해 이대로라면 곧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훌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보았듯이요 우리가 알고 살고 사랑하는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목차, 개요, 요약

연구 개요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연구활동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제 연구는 팜유산업, 화학사고, 석탄발전 세 케이스를 조명합니다. 이 일들은 각기 다른 나라들에서 한

국 기업들이 빚은 사건사고 혹은 사업들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들을 ‘생태학살(Ecocide)’라고 부르고 개념화하고 생태학살의 관점으로 이들을 다시 바라보며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생산의 수레바퀴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생태정의가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대안, 녹색전환을 위한 급진적 시나리오들을 제안합니다. 생태학살이 아닌 생태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생태법, 생태학살의 주체인 기업이 노동자와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지배구조의 개혁, 그리고 지금까지 와는 결단코 다른, 우리의 마음과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는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이 아닌 생태정의를 구현하는 발전상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연구활동가, 액티비스트 리서처란 무엇인지, 앞으로의 자세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구활동 소개

5. 연구과정: 세 달간 나의 연구활동,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간 곳

처음 아야프를 만난지 네 달이 되어갑니다.

6. 문제의식과 연구질문

저는 올해 (한국 언론에는 거의 실리지 않은) 어느 외신으로 이 사건들을 접했어요.

팜유 플랜테이션을 위해 지평선 끝까지 깨맣게 탄 열대우림 숲, 아니 솟. 사시사철 온실가스와 검은 매연을 내뿜어 인근의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들, 붉은 흙이 드러난 석탄채굴지들, 그리고 그 산업화 과정에서 우연찮게 일어난다는 각종 사건사고들, 특히 인근 생태계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는 화학사고들, 을 보면서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싶었지요.

그 외 한국 언론에는 이 일들이 잘 실리지 않습니다. 국민적 관심도 적구요. 인터뷰한 활동가 친구 한국 기업이 참 악당같다고, 이 기업들이 자기네 나라까지 와 이런 짓을 하는데 너희 나라에서는 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해서 참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

제 연구질문은, 1) 이 일들을 생태학살이라고 언어화하고, 나아가 (이론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까? 2) (그렇다면) 이 생태학살의 (공통된)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 일들이 빚어졌는지 어떻게 설명, 접근할 수 있나? 3) 그리고 이 한국 기업들의 생태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 담론, 대안, 제안, 활동이 필요한가. 어떻게 이 에코사이드를 저지른 기업과 정부, 공사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금 없도록 할 수 있을까? 입니다.

7. 연구과정

은 이렇습니다. 아야프의 지원으로 ‘거대한 역설’ 세미나 팀을 꾸려 케이스들을 함께 공부하고 대안을 매주 고민했습니다. 한편,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 이에 연결되는 액션들을 진행하고, 봉양-2 석탄발전소를 막는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막는 프로젝트에 연말을 쏟을 생각입니다. 함께하실 생각이 있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연구팀과 활동팀을 모두 가져갑니다! 언제든 오세요)

연구방법론으로는 문헌과 기사 리서치와 함께 여러 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정식으로 인터뷰를 제안한 분들입니다

8. 연구목적

가장 먼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알리고 공론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소중하게도 발표자가 아니라 폭로이자 공론화입니다.)

특히 환경과 생태, 녹색 문제나외부적이고 부수적인 어떤 것, 개인의 실천으로 요약되는 면이 바꾸고 싶어요. “녹색? 저기 북극곰 이야기? 나이브해. 지금 어디서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말할 때 네. 그거예요. 지금 당장 갈려나가고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과 생명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게 녹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녹색을 확장할 것입니다. 녹색을 말할 때 북극곰이 아니라 생태학살이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건 나무 몇 그루 잘리는 문제도 아니고 지구 좀 따뜻해지는 정도도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고생태학살입니다.

[2]. 케이스들

9. (넘김)

10. 케이스들

저는 세 가지 케이스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기업이 하지만 한국 기업이 빚어낸 참사지만 생태학살이라는 말 아래 하나로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11. 팜유산업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약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원시림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가지요. 한국에서는 코린도,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네셔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수출입은행은 이 팜유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대법적 소유권, 그러니까 땅문서는 없지만 대대로 토착민(Indigenous People)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와 관료들은 각종 로비나 뇌물을 받고 혹은 성장 중심 개발 프로젝트에 휘말려 땅을 넘깁니다. 라이선스를 주는 거죠. (이들의 관습적 소유권이 인정되어 현지 공동체와의 협의를 통해 땅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땅에 간혹 산불이 납니다. 우연히 났다는데 위성으로 보면 기업들이 있는 땅에만 누가 도와준듯이 불이 나서, 나무들을 벨 필요 없이 플랜테이션 하기 딱 좋게 조성해줍니다. 두시간 전에 bbc,, 이들은 고의 방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바꾸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화재 연기가 온 나라를 뒤덮을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괴된 생태계와 공동체가 무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남성은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당하고 여성은 젠더 기반 폭력에 시달립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의 항거에는 기업이 로비한 지방군이 시위를 제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장에서 팜유가 전세계로 수출되고, 유럽국에서는 석유 안 쓴다면 바이오디젤로, 우리가 마트가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식료품에다 팜유 들어가 있습니다. 라면에 엄청 많지요. 그리고 갈아버린 열대우림과 팜유를 짜내고 남은 팜껍질 같은 생물고형연료 Bio-SRF는 우리나라로 수입되서 신재생에너지 REC보조금을 받고 청정에너지 취급을 받고 태웁니다. 석탄보다 온실가스 더 나옵니다.

이제 물을 수 있죠. 여기에 색깔이 있나요? 여기에 노동운동가, 평화운동가, 여성운동가, 생태활동가, 기후, 반전쟁, 반빈곤, 인권, 누가 빠질 수 있나요.

12. 안다

“팜유산업은 그 자체로 절대 지속가능할 수 없어. 오히려 착취가 지속가능한 것 뿐이지. 날아다니는 자본은, 그들은 절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장 뿐이야. (...) 인도네시아의 경제부 장관은 장군 출신이고, 심지어 석탄 채굴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군부대가 그를 수호해서, (반대하는) 사람 하나 둘 죽어도 눈 깜짝 하지 않아. 팜유산업과 석탄산업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당신을 죽일 수 있어. 내 (활동가) 친구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13. 정신영, 김혜린:

“우리는 (근대)문명 이전의 토착적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요. 너무 많이 개발되고 서구화된 거죠. 파푸아 사람들은 정확하게 대대로 살아온 땅이 어딘지 압니다. 이 나뭇가지부터 저 강물까지.. 거기(파푸아)에 있는 사람들 학위 하나 없어도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왜 이 사단이 난지) 다 안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 땅 되돌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수치가 아니에요. 계산에 특화된 언어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가증스럽습니다.”(…) 국제법은 있으나 마나 하죠. 구속력 있는 조정안도 없고. 주권국가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무력해서, 이 기업들을 막을 방도가 없어요..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면 답이 없어요.”

...

14. 화학사고

두 번째는 올해 5월 7일 있었던 LG화학의 가스참사입니다. LG화학 산하 LG폴리머스의 인도 비카스파트남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35만 명의 주민이 새벽에 대피했고, 수백 명의 사상자, 수십명의 사망자를 냈지요. 사람뿐 아니라 인근의 동물 식물들이 모조리 죽거나 했고,

하지만 LG화학은 주가가 그 때로부터 세 배로 올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에다가 그린뉴딜 기업이 되었거든요.

사고 후에 LG화학은 2050 탄소중립 플랜을 국내 기업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전 법무부 관련 권력자가 지금 변호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얼마나 보상하는가 정도의 문제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인근 반경 땅은 앞으로 몇 백 년은 못 쓸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의 관리소홀과 사고 유발책임이 확인되었지요. 이 생태계 학살에 책임은 누가 지나요.

15. 살만

“인도 사람들에게 보팔은 깊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실제로 보팔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로도 물리적으로도 계속 그 흔적을 남기고 있지요. LG참사는 코로나로 제대로 공론화나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묻혀가는 것 같아요. 이 공장이 ‘합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6. [봉양-2]

즉,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에서는 지금도 계속 ‘지속가능’한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인도의 비카샤파트남에서는 사고 후 책임자 처벌, 법과 제도적 대책 마련의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한 달 전에 베트남 해외석탄발전을 최종 결정했지요.

생태학살들은 이미 일어난 뒤에는, 즉 삽을 뜯 후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아직 삽도 뜨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오년 뒤에도, 2050년에도 인근을 매연으로 채우고 기후위기에 일조할 베트남 봉양-2 석탄화력발전소에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정부기관 기업들과 공적금융기관에게 지금이라도 베트남 봉양-2를, 필리핀 남아공에 지으려던 석탄을 철회한 것처럼 그만두기를 요구합니다. 선전포고입니다.

17. 봉양-2, 숨 막힌 피해자 숨죽인 가해자

10월 5일 한전 이사회에서 베트남 봉양-2 석탄발전 수출이 ‘확정’됐습니다. [단독]을 붙인 한국경제 기자는 “정치권 일각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이 계획대로 투자를 결정하면서 국내 석탄화력발전 업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썼지요.

하지만 숨 하니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8개월 산 아이가 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러운 석탄발전소 옆의 삶이 그렇대요. 이에 분노해 농사지으며 살던 주민들은 활동가가 된다. 진실을 찾고 알리려 온 힘을 쓰는데, 자주 목숨을 위협받고. 그리고 죽어요. 주임당해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동지는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는데, 자기는 사고라 믿지 않는다고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국에 국정감사 하려고 들어오기 전에 과한에게 의문사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18. 봉양-2의 사업구조

이렇게 다섯 개, 팀 코리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40%는 미쓰비시가, 20%는 츄코쿠 전력입니다. 지금 이들이 들어간 곳은 중화전력공사가 나온 자리입니다.) 이들은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전, 수익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가? 왜 KDI의 손실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가.

수출입은행은 왜 석탄발전에 막대한 금액을 넣는가.

삼성은 베트남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대 시중은행의 베트남 2대 주주입니다.

이 모든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영향고려, 등등 다 분칠되어 있습니다.

19. 봉양-2의 피해 주민들

그렇다면 이 석탄발전소가 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지만 해외석탄발전소를 투자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는 온갖 착취와 재난, 비가역적 변화가 빚어진다. 직접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고, 시간과 거리를 두고 (지금 당장도) 불확실하게 닥쳐오는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이 된다. 건설과정에서의 생태계 파괴와, 발전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어나는 석탄채굴과 운송 과정에서의 파괴도 빼놓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중앙형 전력구조가 공고화되면 현지 독점 권력이 강화되며, 수출형으로 전력망 시스템 재편되면 경제 사다리 (Economic corrido)의 형성에 중추가 되어 지속적인 전 지구적 착취망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작년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무역보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20. 봉양-2를 막기 위한 곳곳의 움직임들

온 곳에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건 그 반대에도 추진된 산업이고요. 국내고 외고의 모든 방향을 역행한 사건입니다

21. 봉양-2의 극명한 위선

저는 요새 그린뉴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봉양-2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3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 톤에 달합니다. 이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가 2025년까지 73조 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줄이려는 감축 목표인 1229만 톤의 15배가 넘는 양입니다. 같은 햇수로 비교해도 열주 3배(2.7배) 봉양-2를 상쇄하려면 문 정부가 그린뉴딜 발표를 15번은 더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지구 베트남 지구 한국 지구가 따로 있지 않은 한 이는 무용하지요..

22. 동재

“삼성과 한전이 탈석탄을 선언했는데, 결국 2025년까지 애네들은 석탄사업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봉양-2와 자와 9,10 석탄발전소를 알박기 한 거나 다름없지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작업들은 관심을 받기 어렵지만. 반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23. 나현필

통틀어, 이 사안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모든 영역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기업의 무소불위 권력에 어려움이 많아요. 잘 몰라줍니다. 아시아의 개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은 적고, 언론은 취재역량이 떨어질 뿐더러 대부분 기업에 매수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량도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관할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그 관료들은 정말 법이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24. 그런위성

저는 프로포절 발표 때 미래 세상이 어떨 것 같냐는 희망 섞인 물음에 (파국의 문턱에 다다른) 녹색 분칠된 자본주의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다가 파국으로 걸어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녹색’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해보자. 다 ESG, 환경영향, 기후대응 하겠다고 합니다.

지소가능팜유제도, 2050 탄소중립, 탈석탄과 친환경석탄발전소

말이 공허하게 되거나 눈을 가릴 때 그것을 그런위성이라 부릅니다. 온갖 명분을 내걸고 녹색분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어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친환경 기업 아니고, 그런 아니고, 이건 생태학살입니다!

이렇게 생태학살을 호명함을 통해 녹색분칠에서 녹색 전환으로 진정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장된 언어와 녹색 거짓말들과 싸우자.

[3] 원인, 이론, 접근

25. (넘김)

26. 생태학살(Ecocide)의 배경과 정의

생태학살이 낯선 용어지요.

처음에는 생태학살이 입에 붙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오픈 프로포절 발표 이후 이 개념의 잠재력을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건사고가 아니라 학살로 명명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팜유산업에서 일어난 사건, 석탄발전 사업, 가스누출 사고 등 이들을 늘상 일어나는 일인 것마냥 별개의 사건 사업 사고로 부를 때 이들은 각각의 사태가 되어 흩어져버린다. 어쩌다 일어난 일개 사건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사고이거나, 심지어는 ‘잘 살게 해준다’는 명분의 사업일 때 죄는 증발하고

만다. 우리에게는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업 사고를 생태학살이라고 명명할 때 기후위기의 초래, 생태계 파괴, 인권침해, 노동착취, 토지강탈 등의 부조리들을 모두 포괄해 녹색범죄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고를 범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저는 생태학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과 동식물, 이들이 묻어들어가 있고 이를을 둘러싼 생태계와 기후에 심각한 규모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학살을 일삼는 행위 혹은 사태를 생태학살이라 부른다”

생태학살의 배경으로는 19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 에이전트 오렌지를 뿌리며 처음으로 이건 생태학살이다라는 담론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가 그 다음을 찍습니다. 몬산토의 극악한 짓을 생태학살로 명명하고 이를 막는 국제법을 만들자는 시도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태계와 사회를 파괴한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에코 사이드는 녹색 혹은 생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7. 생태학살로 해석하기

제가 앞서 짚은 이 세 사례가 왜 생태학살인가? 먼저 팜유산업은 방화와 벌목으로 인한 원시림과 그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과 팜유 생산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초래합니다.

다음으로 화학사고는 지역의 생명들에 대한 화학물질의 누적 피해와 인근 토지의 비가역적 오염을 일으킵니다.

석탄발전은 생태학살의 가장 정점에 있다 생각합니다. 건설 과정에서의 생태계 파괴, 석탄 채굴 과정에서의 생태계 파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지역 사회 파괴, 탄소배출과 기후위기 초래를 일으킵니다.

이 외에 지역 공동체를 아작내고 사회적 혼란과 소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생태-사회적 위기를 만드는 이 사례들은 생태학살입니다.

28. 생산의 수레바퀴

그렇다면 이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생산의 수레바퀴 이론을 빌려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동학과 생태학살의 상관관계를 짚습니다

생산의 수레바퀴 이론은, 기업이 투입과 산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가 벌어짐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윤창출이라는 명목아래 이뤄지는 기업활동이 생태학살로 이어

지는 구조적인 연결 지점을 살펴보고, 마르크스가 진단했듯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긋내고, 자연적-사회적 물질대사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균열내며 작동하는 측면, 칼 폴라니의 ‘악마의 맷돌’ 개념이 보이듯이 자본주의 체제가 축적하고 확장하고 가속하는 과정에서 토착적인 공동체와 생태계는 갈려나나가는 면을 짚습니다.

29. 생태정의

생태학살을 막는 생태정의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태학살을 막기 위해 탄탄하게 정의의 기반을 확립해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파괴는 언제나 빈자와 소수자의 주위에서 일어나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상으로 지구적인 불평등하고 부정의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체제를 변혁하는 기후정의가 기후위기를 막는 유일한 길임을 시사한다.

생태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정의’로는 부족하다. “생태학살” 범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인간 중심적인 ‘환경’ 개념에서 좁게 규정되던 피해의 범위를 생태로 확장함으로써, 사람을 포함해 비인간 동물, 식물군, 대지와 자연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생태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생태정의를 구호로 올려야 한다. 기후정의에 생태정의의 색을 묻혀서 구호로 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생태학살의 원인을 밝히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4] 급진적 대안

30. 급진적 대안(넘김)

31. 총체

대안을 제시할 때도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총체성의 대안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대안은 하나일 수 없고, 양자택일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에 함께 갑니다. 사회와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여러 측면을 함께 생각하고, 제 대안도 패키지형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물질대사

생산관계와 그 노동과정

일상의 재생산

세계관 패러다임, 멘탈리티

사회적 관계, 법과 제도

사회적 실천의 기술과, 조직화

32. 이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급진적 대안 시나리오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장에서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33. 국제 생태법

제가 길을 찾은 듯이 기뻤던 첫번째 급진적 대안입니다. 현행법은 무용하고, 기업들은 법인격을 부여한 기업의 근대적 소유권에 자리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생태학살이라는 단어를 붙잡는 것은 이 대안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34. 지구와 로마 협정

생태학살이라는 단어는 국제법 개정-제안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국제협정이나 시민법으로는 시도가 어려운 사안들을 로마 협정의 다섯 번째 반인도 원칙에 생태학살을 올려놓으며 국가와 기업의 생태학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형법재판소의 영향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생태학살이 국제법에 의해 범죄로 인정된다면, 기업들의 범죄뿐 아니라 이들과 결탁한 국가의 책임도 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봉양-2를 비롯한 사건들을 생태학살로 명명할 때 법의 상상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태헌법의 가능성까지도 말이지요.

35.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작동방식을 바꿀 구체적 안이 필요합니다. 기후금융의 이름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고려 투자, 사회책임투자 ESG, SRI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필요하고 저는 노동자경영권,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제안합니다. 생산방식에서 있어서 민주화가 있을 때 기업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학적 모델은 생산방식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기쁨에도 기여하게 되는 경제체제를 요청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노동을 주관하는 결정권에 노동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일이 수반될 것이다. 기업과 회사의 소유 또는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명의 해방>

36. 대안개발상

그보다 이전의 개발이 지구한계를 초과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면 지구를 지속가능한 차원으로, 생태학살이 없는 개발을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개발 패러다임, 도넛, 탈성장의 안을 유심히 바로보고 있습니다. 지세프와 같이 로컬과 순환경제로의 이행은 분명(루크)가 말했듯 자연과 사회적 물질대사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37. 다시

이렇게 걸어갑시다.

[5] 마지막

38. 연구활동가의 정의

저는 연구활동가를 “ ”으로 정의합니다.

지금 당신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연구활동가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저는 이리 되묻고 싶네요. 저에게도 그 온도가 양심이고 삶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39. 끝으로, 연구의 끝, After

연구활동가로서 제 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만간 가보려 합니다.

하나 약속드릴 것은, 이 연구의 끝은 지속적인 착취가 역사속으로 건너가며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입니다. 제 생전에 얼른 이 연구활동이 끝났으면 좋겠군요(웃음). 7년 남았으니,

후원이나 격려는 언제나 좋습니다. 이 사진이 7년 전 베트남 돌아다닐 때니, 오-랜만이겠네요

아 같이 해보고 싶은 분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연구와 활동을 함께할 팀은 늘 모집합니다.